

스웨덴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공동활동 참여도와
생활만족도 시계열 차이
: 2001년도와 2010년도 비교

Differences of Participation in Common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in Swedish
Senior Cohousing by Longitudinal Analyses
: Focus on Differences Between the Years of 2001 and 2010

최정신(Jungshin Choi)¹, 조재순(Jaesoon Cho)^{2*}

¹Major in Consumer & Housing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²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differences of participation in common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of Swedish senior cohousing residents between the years of 2001 and 2010 by conducting a longitudinal study. The same questionnaire were surveyed nationwide to 186 residents of 8 Senior Gården cohousings in 2001 and 127 residents of 4 +40 cohousings in 2010, resulting in total 313 respondents' data. The results show that the +40 cohousing respondents are more likely than Senior Gården cohousing respondents to participate in all common activities, especially common meals and common coffee meetings. However, the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quantity as well as the contents of participating in common activities does not statistically differ in the two groups and life satisfaction is similarly high with a few differences. The +40 cohousing respondents are less likely to stay at and more likely to move into age-mixed cohousing if they have a chance to move when compared to their Senior Gården cohousing counterpart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reveals tha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enior cohousing residents have been changed and they have become more likely to be active participants of various common activities and have high life satisfaction.

▲주제어(Key words) : 노인용코하우징(senior cohousing), 공동활동참여(participation in common activity),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스웨덴(Sweden), 종단분석(longitudinal analysis)

* Corresponding author : Jaesoon Cho,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50 TaeseongTabyeon-ro, Gangnae-myeon, Heungdeok-gu, Cheongju-si, Chungbuk, 28173, Republic of Korea Tel: +82-43-230-3728, E-mail: jscho@knue.ac.kr

I. 서론

은퇴는 노후에 어디에서 살 것인가, 어떠한 생활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H. O. Hong et al., 2004; L. Russell, 2000). 우리나라 산업 사회를 이끌어 온 70여만 베이버부머 세대가 은퇴에 진입하면서 우리 사회의 빠른 고령화는 개인과 사회의 큰 도전이자 과제가 되고 있다. 베이버부머 과반수 이상이 은퇴 후에 이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G. Im & S. Baek, 2011; H. Kim, Y. Lee, & H. Yoon, 2010), 독립적이며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노후의 주거요구와 함께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요구를 충족하고 이웃공동체를 강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대안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 건강하고 길어진 수명과 더불어 가족구조와 가치관, 노동시장 등의 변화와 빠른 고령화로 연금, 의료, 주택 지원 등 급증하는 사회복지비용측면에서도 노인들이 시설거주보다는 일반주거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노인 스스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노인복지정책의 세계적인 추세 중의 하나이다.

노인용 코하우징(senior cohousing)은 우리보다 일찍 고령사회에 들어선 유럽국가에서 노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요소인 주거복지 측면의 다양한 노력에 의해 노령인구를 위한 주거대안의 하나로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나라가 고령화에 직면하면서 세계적인 사회 움직임으로 확대 되고 있다(G. Cars, 2010; C. Durrett, 2009;). 노인용 코하우징에 관한 국내외 문헌들은 일관되게 노인들이 코하우징에서 보다 잘 나이 들어가면서 원하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J. Choi & J. Paulsson, 2006, 2011; C. Durrett, 2009; A. P. Glass, 2009; A. P. Glass & R. S. Vander Plaats, 2013; I-L. Sangregorio, 2000, 2010; D. U. Vestbro, 2010).

노인용 코하우징은 'aging in place' 할 수 있는 일반 노인주택의 한 유형에 속한다. 덴마크와 스웨덴의 노인용 코하우징 입주가능 연령은 노인주택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연령에 맞춰 부부 중 한 사람이 최소 55세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노인용 코하우징이 설립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코하우징 주민공동체도 고령화되어 활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스웨덴에서 유일하게 입주연령을 동거하는 자녀가 없는 40세 이상으로 낮춘 '+40 코하우징' 모델이 국내외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코하우징(cohousing)은 산업사회이후 심화되는 개인주의 경향, 노인가구 증가, 독신가구 증가, 한부모 가족과 맞벌이 가족 증가, 기혼 여성의 시장경제 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외로움과 소외감, 아동양육의 어려움, 가사노동부담, 일상생활시간 부족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발된 생활공동체이다(Housing Study Group, 2000; D. U. Vestbro, 2010). 코하우징 운영방식이 단지규모가 크고 식사와 아동 돌봄, 세탁, 청소 등의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받던 이전의 '서비스 모델(service model)'에서 주민이 스스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해결하는 '자치관리모델(self-work model)'로 바뀐 최근 30여 년간 우리보다 앞서 가족해체가 일어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한 스칸디나비아와 유럽 각국, 그리고 북미 국가에서 다수의 공동체가 계속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최근 일본과 한국에도 소규모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코하우징에서의 생활은 두 가지 특징적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공동활동 참여로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웃공동체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력 제공과 공동구매 등을 통해 생활비를 절약하는 실질적 지원이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코하우징의 특성 상, 주민구성이 매우 중요하며, 일단 입주한 주민들이 가능한 한 오래도록 한 공동체 안에서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코하우징에서 주민들이 코하우징의 기본이념인 공동활동에 참여가 낮고, 공동체 생활에 불만족하여 이사를 자주한다면 코하우징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스웨덴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의 시계열적 차이를 분석한 연구(J. Choi, 2013b)에 따르면, 2010년에 조사한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들과 2001년에 조사한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들 사이에 노인용 코하우징으로의 이주동기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조사한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들이 앞서 2001년 조사한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들보다 주택관리나 환경적 이유에서 이주한 동기는 감소한 반면, 혼자 있지 않으려고, 이웃과의 친밀한 접촉, 상호지원, 공동활동 참여와 같은 이유의 이주동기가 유의하게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주동기 변화는 코하우징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과연 이웃이나 공동활동 참여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진 이들이 실제 노인용 코하우징에 거주하면서 공동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아울러 생활만족도도 높은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노인용 코하우징이 잘 정착,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스웨덴 전역의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을 대상으로 2001년과 2010년에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스웨덴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의 시계열적 차이를 분석한 연구(J. Choi, 2013b)의 후속연구로,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용 코하우징 거

주자의 두 시점의 공동생활활동 참여도와 생활만족도 차이를 분석하여 변화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2001년도와 2010년도의 스웨덴 노인용코하우징 주민의 공동생활활동 참여 실태는 어떠한가? 두 시점의 공동활동 참여도에 차이가 있는가? 어떤 공동생활활동이 변화하는가?
- 2) 2001년도와 2010년도의 스웨덴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생활만족도 실태는 어떠한가? 두 시점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어떤 생활만족도가 변화하는가?

이 연구결과는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들이 공동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 생활 현실이 10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밝혀 노인용 코하우징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사점을 주고 아울러 우리사회의 노인주거대안으로 적용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용 코하우징과 '+40 코하우징'

노인용 코하우징(senior cohousing)은 인생 후반부를 위한 주거(housing for the second half of life)라고도 하는데, 건강한 노후세대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잔존능력과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동활동 운영에 적극 참여하면서 자치적으로 생활하는 노인주택의 일종으로, 노인홈, 서비스주택, 그룹홈, 요양원 등과 같은 특수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의 범주에 속한다(J. Choi & J. Paulsson, 2015; J. Paulsson, 2007). 노인용 코하우징의 기본개념은 코하우징과 같으나 다만 노인주택의 임대지원금 규정 때문에 주민들의 연령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이므로 건물의 디자인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기본적으로 채용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스웨덴의 노인용 코하우징은 덴마크의 미드고즈그룹펜(Midgårdgruppen, 1987년 설립)보다 다소 늦게 1993년도 스톡홀름 중심부에 페르드크내펜(Färdknäppen)이라는 43가구 +40 코하우징이 최초로 시작된 이후 많은 단지가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설립되었다. 노인용 코하우징 설립이 활발해진 배경에는 스웨덴 정부가 지난 30여년동안 추구해 온 정책으로 노후세대가 고령화되더라도 일반주택에 거주하면서 가능한 한 시설로의 입주를 늦추거나 또는 아주 입주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노인복지정책이 있다. 1987년 사회복지법(Ådel) 개정 이전에는 노인

들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개인 건강상태와 요구에 관계없이 주거와 서비스가 패키지로 마련된 요양원(nursing home)에 입주하여 수동적으로 생활하던 방식이었으나,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본인이 희망하면 최대한 오래도록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자기 집에 최대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개선자금 보조, 가사보조원을 이용한 가사원조서비스, 지역간호사를 통한 재택의료서비스, 휠체어를 사용하는 노인들을 위한 급식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택보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스칸디나비아에서는 건강하고 비교적 젊은 층의 노후세대들 사이에서 스스로 자치관리모델의 코하우징을 설립하여 이주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노인들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정서적 측면과 노인부양비용의 절감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J. Choi, 2003a; J. Choi & J. Paulsson, 2006) 유럽 여러 나라는 물론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활발하게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다.

코하우징은 설립주체, 주택소유권, 운영주체, 주민 입주 연령, 신축/개축 등 여러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 있다. 설립주체 측면에서는 주민주도형과 지방정부주도형으로, 주택소유권 측면에서는 개인소유, 조합소유, 공영임대주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운영주체 측면에서는 자치관리모델과 서비스모델로, 입주연령 측면에서는 연령통합형과 노인용 코하우징(또는 '+40 코하우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운영주체는 자치관리모델이 일반적이지만, 설립주체와 주택소유권, 신축여부 등의 측면은 다양하게 혼합되어 있다. 노인용 코하우징 입주조건에 최소연령 기준을 둔 이유는 코하우징 설립 시에 지원 받을 수 있는 노인주택 임대지원금 규정 때문인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55세 이상이어야 노인용 코하우징을 일명 '+55 코하우징'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2000년대 이후 스웨덴에서는 이 규정은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55세 이상의 노인용 코하우징의 입주연령을 40세 이상으로 낮추어 가는 경향이며, 이름도 노인용 코하우징(senior cohousing)이라는 용어 대신에 '+40 코하우징'으로 부르는 추세이다. '+40 코하우징'은 아직 스웨덴만의 독특한 현상이다. 스웨덴에서 노인용 코하우징의 최소입주연령제한을 +55에서 +40로 낮추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J. Choi, 2013b; J. Choi & J. Paulsson, 2015). 1990년대에 처음으로 노인용 코하우징이 설립되고 난 후 20여년이 경과하면서, 설립당시에 입주한 주민들도 20여년씩 고령화됨으로써 코하우징 공동체 전체가 고령화되어 활력이 줄어들 뿐 아니라 은퇴 이후에 외부사회와의 연관

성이 약화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소 입주연령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40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아직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연령대의 주민들을 영입하여 그들을 통하여 외부 사회와의 보다 지속적인 연결과 신선한 분위기를 가져오는 대신, 은퇴 후의 고령층은 여유시간이나 유희인력을 활용하여 공동체 유지나 공동활동 참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함으로써 젊은 층의 가사노동 시간 절약 등에 도움을 주는 상호보완적인 장점을 활용하자는 취지이다(J. Choi, 2013b; J. Choi & J. Paulsson, 2015; I-L. Sangregorio, 2010). 2010년 현재 스웨덴 코하우징의 공식 홈페이지인 콜렉티브하우스(Kollektivhus.nu/ Cohousing Now)에는 전국에 '+40 코하우징'이 8개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속해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D. U. Vestbro, 2010).

노인용 코하우징에 관한 국내외 문헌들은 일관되게 노인들이 코하우징에서 보다 잘 나이 들어가면서 원하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J. Choi & J. Paulsson, 2006, 2011; C. Durrett, 2009; A. P. Glass, 2009; A. P. Glass & R. S. Vander Plaats, 2013; I-L. Sangregorio, 2000, 2010; D. U. Vestbro, 2010). 여러 나라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면서 노인용 코하우징은 세계적인 사회 움직임으로 확대 되고 있는 추세이다(G. Cars, 2010; C. Durrett, 2009; B. Egerö, 2010; D. U. Vestbro, 2010).

2. 공동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코하우징은 주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상호접촉이 일어나고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디자인된 물리적 환경에서, 이웃과 협동하고 도우며 친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입주주민들이 모여, 이들의 민주적인 참여로 이루어내는 여러 가지 공동생활활동을 통해, 이웃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생활의 질을 높여 만족스런 생활을 영위하는 공동체 주거단지이다. 따라서 노인용 코하우징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디자인 특성과 주민의 특성은 어떠한지(J. Choi, 2003a; C. Durrett, 2009; I. Koyabe, 1994; Z. Toker, 2010; J. Williams, 2006), 코하우징을 선택하여 이주한 동기나 목적이 무엇인지(J. Choi, 2003b, 2013a, 2013b; A. P. Glass, 2009), 코하우징 개발 초기 설립단계에서부터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에 참여하였는지(C. Durrett, 2009; J. Williams, 2008), 물리적 디자인에 대한 주민의 입주 후 평가는 어떠한지(J. Choi, 2003a, 2004), 어떤 공동생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

동생활활동에 대한 참여정도는 어느 정도인지(J. Choi & J. Paulsson, 2006, 2011), 코하우징 공동체 내에서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어떠한지(J. Choi, 2004, 2005; J. Choi & J. Cho, 2006; J. Choi & J. Paulsson, 2006, 2011; J. Choi, J. Cho, & K. Suh 2014) 등에 대한 주제로 관찰과 면담, 설문조사를 통해 기술적인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결과에 의해, 노인용 코하우징 입주자는 비교적 건강한, 고학력, 전문직, 여성, 독신이 많다는 특성이 있으며, 일반 코하우징 입주자와 같이 공동활동 참여와 코하우징의 이념에 대한 강한 동기의식을 갖고, 입주 후에는 이웃과 서로 도우며 다양한 공동생활활동에 참여하며, 코하우징에서의 생활에 만족하며 다른 곳으로의 주거이동의사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인용 코하우징은 상호접촉과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계획한 실내의 통로와 벤치, 홀, 공동 부엌과 식당, 거실, 독서실, 사무실, 작업실, 세탁실, 체력단련실, 정원, 온실, 텃밭 등과 같은 공동생활공간과 주변 등지의 공유공간에서, 각종 운영위원회, 공동식사, 커피모임, 각종 취미활동, 운동, 정원 가꾸기 등과 같은 공동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활동 빈도와 내용은 주민 전체가 결정하고, 참여여부와 정도는 개인이 결정한다. 공동활동 참여 실태는 어떤 종류의 공동활동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가에 대해, 생활만족도는 코하우징에서의 생활 전반에 대한 리커트 척도 항목에 주관적 평가를 통해 측정된 결과로, 일반주거에서보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생활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밖에 비교분석 연구에서는 스웨덴 코하우징의 국내 전문가인 최정신과 그의 국내외 동료들에 의해 성별과 같은 코하우징 주민특성(J. Choi & J. Cho, 2006)이나, 연령통합형 코하우징과 '+40 코하우징' 별(J. Choi, 2013a), 국가별(J. Choi, 2005) 등으로 차이를 분석한 연구, 코하우징으로의 이주동기와 생활만족도와의 관련성(J. Choi & J. Cho, 2006), 공동생활참여와 만족도 및 이사계획의 연관성을 본 연구(J. Choi & J. Cho, 2006; J. Choi & J. Paulsson, 2011; J. Choi, J. Cho, & K. Suh, 2014) 등 최근 10여년간 실증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 소개되고 있다. 일부 연구결과(J. Choi, 2004)는 국제적으로 널리 인용되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는 스웨덴의 코하우징이나 노인용 코하우징에 누가, 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의식과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웃과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한편, 모두 횡단자료에 기초하고 있어 변화를 파악하는 데

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의 차이를 둔 노인용 코하우징으로의 이주동기 변화를 추적한 흥미로운 연구가 발표되었다(J. Choi, 2013b). 이 자료는 J. Choi & J. Paulsson이 2001년과 2010년 두 시점에서 스웨덴 전역을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지로 수집한 것으로 그동안 각각 횡단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 쓰인 원자료를 합쳐 종단형태의 자료로 활용한 것이다. 이 J. Choi(2013b) 연구에서는 코하우징으로의 이주동기에 있어 2010년에 조사한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들은 앞서 2001년에 조사한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들보다 주택관리나 환경적 이유에서의 이주동기는 감소한 반면, 혼자 있지 않으려고, 이웃과의 친밀한 접촉, 상호지원, 공동활동 참여와 같은 이유의 이주동기는 유의하게 높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10년간 시차를 두고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한 주요동기가 문화적, 자연적 환경과 위치가 좋은 주거지를 찾는 환경적 이유와, 주택과 정원 관리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은 주택관리의 이유에서 코하우징 삶의 핵심인 공동생활 우선으로 변화했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노인용 코하우징에서의 생활에 대한 인식과 기대의 긍정적인 변화는 코하우징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과연 이웃이나 공동활동 참여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진 이들이 실제 노인용 코하우징에 거주하면서 공동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아울러 생활만족도도 높은지 알아보는 후속연구를 실시하여 변화를 포괄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웨덴 전역의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들을 대상으로 2001년과 2010년에 조사한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주동기에 이어 노인용 코하우징 거주자의 두 시점의 공동생활활동 참여도와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10년간의 시계열적 변화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이 연구는 2001년과 2010년에 조사한 스웨덴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 차이를 시계열로 분석한 연구(J. Choi, 2013b)와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두 표본은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우편과 이메일로 수집하였으며, 2001년 표본은 민영주택회사 JM에서 입주예정자와

함께 개발하여 분양한 시니어고든 (Senior Gården) 코하우징 8개단지¹⁾ 186세대 (회수율 186/242=76.9%)이며, 2010년 표본은 스웨덴 코하우징 공식홈페이지인 콜렉티브 후스누(www.Kollektivhus.nu/Cohousing Now)에 등록된 +40 코하우징²⁾ 4개단지²⁾ 127세대 (회수율 127/165=77.0%)로, 총 12개 단지에 거주하는 313가구이다. 자료는 6점 리커트 척도로 된 7개 항목의 공동활동 참여도, 공동활동의 빈도와 내용에 대한 주관적 평가 각각 1문항, 3점 또는 5점 리커트 척도로 된 6개 항목의 생활만족도와, 주거이동 계획과 희망하는 주민의 연령구성 각 1문항과 더불어 일반적 특성 8개 변수에 대한 것으로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 교차분석, t-test로 분석하였다.

시계열 차이는 동일한 집단을 추적하여 연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 연구는 두 시점의 조사대상이 동일하지 않은 한계가 있으나 미래주민들이 초기단계부터 완공까지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주민주도형”으로 설립됐다는 공통점에 중점을 두어 선택하였다(J. Choi, 2013b). 연구대상 노인용 코하우징의 주택소유권은 시니어고든이 민영주택 회사인 JM에서 개발하여 민간에게 분양한 개인소유주택이고, +40 코하우징은 조합소유 또는 공영임대라는 차이는 있으나, 주거복지가 발달된 스웨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주택을 자산 가치로 보기보다는 생활의 도구로 보는 경향이 강하여 주택소유권을 경제적 이유보다는 개인의 의지와 생활방식에 따라 선택하는 추세이고 아울러 주거조건도 소유권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편적 복지 개념을 적용하고 있어(G. Cars, 2010; J. Choi, 2013b) 주택 소유권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팔목할만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IV.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차이

2001년 표본의 응답자와 2010년 표본의 응답자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을 제외한 일반적 특성 7개 변수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2010년 표본의 '+40 코하우징' 거주자들은 2001년 표본의 시니어고든 코하우징 거주자보다 연령은 더 젊고 학력은 높은 60대와 대졸이, 가구유형은 독신이, 현재 또는 과거의 주요 직업은 교육자와 고위 공무원이나 사무직 비율이 더

1) Senior Gården (8 communities): Österlen Seniorbo(1995), Solrosen(1993), Ringblomman(1996), Eriksberg, Höjdpunkten, Kaplanen, Solhöjden, Tunadalen

2) +40 cohousing (4 communities): Färdknappen(1994), Majbacken(2003), Sockenstugan,(1994), Tersen(200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

General characteristics		2001 (n1=186)	2010 (n2=127)	total (n=313)	F-value
Gender	male	71 (38.2)	37 (29.1)	108 (34.5)	2.73 ns
	female	115 (61.8)	90 (70.9)	205 (65.5)	
Age	~59	11 (5.9)	16 (12.6)	27 (8.6)	38.92***
	60~69	39 (21.0)	63 (49.6)	102 (32.6)	
	70~	136 (73.1)	48 (37.8)	184 (58.8)	
Living situation	single	88 (47.3)	86 (67.7)	174 (55.6)	12.73***
	cohabitant	98 (52.7)	41 (32.3)	139 (44.4)	
Health condition	bad	4 (2.2)	19 (15.0)	23 (7.3)	27.35***
	not all right	43 (23.1)	44 (34.6)	87 (27.8)	
	all right	139 (74.7)	64 (50.4)	203 (64.9)	
Education	elementary school	71 (38.2)	6 (4.7)	77 (24.6)	76.53***
	junior/senior high school	70 (37.6)	31 (24.4)	101 (32.3)	
	college/university	45 (24.2)	90 (70.9)	135 (43.1)	
Profession	home worker	13 (7.0)	1 (0.8)	14 (4.5)	47.67***
	worker without long professional education	25 (13.4)	9 (7.1)	34 (10.9)	
	worker with long professional education	15 (8.1)	6 (4.7)	21 (6.7)	
	civil servant/official without long professional education	44 (23.7)	9 (7.1)	53 (16.9)	
	civil servant/official with long professional education	42 (22.6)	37 (29.1)	79 (25.2)	
	academic	25 (13.4)	52 (40.9)	77 (24.6)	
	leader/owner of a business	12 (6.5)	6 (4.7)	18 (5.8)	
others	10 (5.4)	7 (5.5)	17 (5.4)		
Dwelling size	1~2r+k	50 (26.9)	96 (75.6)	146 (46.6)	72.28***
	3r+k	111 (59.7)	27 (21.3)	138 (44.1)	
	4~5r+k	25 (13.4)	4 (3.1)	29 (9.3)	
Years living in the dwelling	~2	72 (38.7)	46 (36.2)	118 (37.7)	13.14***
	3~7	86 (46.2)	41 (32.3)	127 (40.6)	
	8~	28 (15.1)	40 (31.5)	68 (21.7)	

*** $p < .001$

높았으며, 주거상황은 더 작은 규모의 주택에서 더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었다. 성별에서 여성 거주자 비율이 늘어난 것이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여성이 대세인 추세이며, 건강상태는 좀 좋지 않다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두 표본에서 나타난 차이는 노인용 코하우징 거주자가 비교적 건강한, 고학력, 전문직, 독신, 여성이 많다는 일반적 특성이 더욱 뚜렷하게 두드러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추세로 보인다.

2. 공동활동 참여 변화

대부분의 코하우징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6가지 공동활동과 기타활동을 합친 7가지 공동활동에 대한 참여도는 모든 활동에서 2010년 표본의 '+40코하우징' 거주자들이 2001년 표본의 시니어고든 코하우징 거주자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동식사가 가장 활발하게 빈번해졌으며, 다음은 공동커피모임이었다. 2001년 표

본의 시니어고든 코하우징 거주자들의 각 공동활동 평균 참여도는 6점 만점에서 최소 1.72(공동식사)에서 최대 2.92로 각 활동의 평균참여도가 모두 3.0 이하인 가운데, 가장 참여도가 높은 공동활동은 자치운영위원회 참석(2.92) 이었고, 그 다음은 공동커피모임(2.75) 이었다. 반면, 2010년 표본의 '+40코하우징' 거주자들의 공동활동 평균참여도는 최소 3.01(공동정원 가꾸기)에서 최대 5.10(공동식사)으로 각 활동의 평균참여도가 모두 3.0 이상이며, 공동식사가 가장 빈번하게 참여하는 공동활동(5.10)이고, 그 다음은 커피모임(4.30), 자치운영위원회 참석(3.74)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표본의 '+40 코하우징'에서 모든 공동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코하우징의 대표적인 공동활동으로 알려진 공동식사와 커피모임이 두드러진 활동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동식사가 2001년 표본의 시니어고든 코하우징 거주자들 사이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활동이었던 이유는 그들이 2010년 표본의 거주자들

Table 2. The Frequency of Participation in Common Activities (N=313)

Common activity		Never		Once or a few times a year		Once or a few times per 3 months		Once or a few times a month		Once or a few times a week		Every everyday		Mean	F-value
		n	%	n	%	n	%	n	%	n	%	n	%		
		Steering committee/ inhabitants/meeting	2001	10	6.0	47	28.3	70	42.2	28	16.9	8	4.8		
	2010	3	2.4	4	3.1	31	24.4	74	58.3	15	11.8	-	-	3.74	
Common meals	2001	59	52.2	32	28.3	19	16.8	2	1.8	-	-	1	0.9	1.72	221.82***
	2010	-	-	-	-	1	0.8	12	9.4	87	68.5	27	21.3	5.10	
Common coffee meeting	2001	40	28.8	24	17.3	27	19.4	29	20.9	17	12.2	2	1.4	2.75	77.65***
	2010	7	5.5	8	6.3	20	15.7	24	18.9	41	32.3	27	21.3	4.30	
Common hobby activities	2001	63	61.8	6	5.9	2	2.0	10	9.8	21	20.6	-	-	2.21	9.95***
	2010	28	22.0	30	23.6	22	17.3	27	21.3	18	14.2	2	1.6	2.87	
Common exercise/ gymnastics	2001	74	65.5	5	4.4	6	5.3	6	5.3	21	18.6	1	0.9	2.10	17.71***
	2010	40	31.5	14	11.0	19	15.0	20	15.7	26	20.5	8	6.3	3.06	
Common gardening	2001	48	34.3	46	32.9	19	13.6	15	10.7	8	5.7	4	2.9	2.29	21.69***
	2010	9	7.1	38	29.9	37	29.1	32	25.2	8	6.3	3	2.4	3.01	
Other common activities	2001	35	36.5	33	34.4	4	4.2	9	9.4	15	15.6	-	-	2.33	19.28***
	2010	22	17.3	18	14.2	21	16.5	53	41.7	11	8.7	2	1.6	3.15	

*** $p < .001$

Table 3. Total Frequency of Common Activity Participation

Total points of frequencies	2001		2010		Total		F-value
	n1	%	n2	%	n	%	
≤ 7	2	3.1	-	-	2	1.0	218.35***
8~14	40	62.5	2	1.6	42	22.0	
15~21	16	25.0	24	18.9	40	20.9	
22~28	6	9.4	69	54.3	75	39.3	
29~35	-	-	31	24.4	31	16.2	
36 and more	-	-	1	.8	1	.5	
Mean	2.41		4.04		3.49		

*** $p < .001$

Table 4. Subjective Evaluation of Frequencies and Contents of Participating Common Activities (N=313)

Subjective evaluation of frequencies and contents of participating common activities	2001		2010		Total		F-value	
	n1	%	n2	%	n	%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requency of common activities?	should be much more	1	.6	1	.8	2	.7	1.78ns
	should be a little more	17	10.1	24	19.0	41	13.9	
	just right as it is	148	88.1	86	76.2	244	83.0	
	too much	2	1.2	5	4.0	7	2.4	
	mean		2.10		2.17		2.13	
Is it good and right activity contents for you?	no, I have totally other interest	24	15.8	9	7.1	33	11.9	2.15ns
	no, I have a little other interest	49	32.2	47	37.3	96	34.5	
	yes, just right	79	50.0	70	55.6	149	53.6	
	mean		2.36		2.48		2.42	

보다 평균연령이 더 높고 (Table 1 참조) 또한 시니어고든 코하우징 근처에 위치한 노인 홈과 같은 서비스 시설에 식사를 주문하면 실비로 언제나 쉽게 배달받을 수 있어 단지 내의 공동식사가 주민의 친목을 도모하는 범위 정도로 이루어지기 때문(J. Choi & J. Paulsson, 2006)으로 보인다.

개인별로 각 활동에 참여한 리커트 점수를 합한 전체평균은 <Table 3>에서와 같이, 2001년 표본의 시니어고든 코하우징 거주자들이 6점 만점에서 2.41점으로 평균 각 활동에 3개월 내지 1년에 한번 내지 몇 번 참여하는 정도인데 비해, 2010년 표본의 '+40 코하우징' 거주자들은 4.04점으로 평균 각 활동에 한 달에 한번 내지 몇 번씩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두 표본에 나타난 공동활동 참여차이는 노인용 코하우징 거주자가 공동식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특성이 2010년 표본의 '+40 코하우징'에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고 전형적인 노인용 코하우징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가 이주동기변화(J. Choi, 2013b)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공동활동 참여는 자치관리모델 코하우징의 핵심으로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강화할 수 있게 된다(J. Choi & J. Paulsson, 2015).

<Table 4>에서는 이와 같은 공동 활동 빈도와 활동내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알아보았는데, 공동활동 빈도에 대해서는 3점 만점에서 평균 2.10과 2.17로, 2001년 표본의 시니어고든 코하우징 거주자와 2010년 표본의 '+40 코하우징' 거주자들 모두 유의미한 차이 없이 80% 내외가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활동이 양적인 면에서 적당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유의미하지 않은 범위에서 2010년 표본의 '+40 코하우징' 거주자들이 2001년 표본의 시니어고든 코하우징 거주자보다 좀 더 많은 양의 공동활동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공동활동의 내용이 응답자에게 적합 하느냐에 대해서도 3점 만점에 평균 2.36과 2.48로, 두 표본의 응답자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이 50% 남짓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비록 공동활동 내용은 2001년 표본의 시니어고든 코하우징 거주자가 2010년 표본의 '+40 코하우징' 거주자들 보다 더 다른 활동, 예를 들면, 영화감상, 그림그리기, 독서 같은 취미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길 원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두 표본의 응답자들은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활동의 빈도와 내용에 대해 주관적으로 비슷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표본의 '+40 코하우징' 거주자가 2001년 표본의 시니어고든 코하우징 거주자 보다 공동

활동 전반에 대한 참여율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빈도와 활동내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다르지 않은 것은 각각 자발적으로 원하는 활동에 원하는 만큼 참여하고 있어 주관적인 평가는 알맞다고 비슷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3. 생활만족도 평가 변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인용 코하우징에서의 생활에 대한 평가는 6개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Table 5), 두 표본 간에 생활만족도 두개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4개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 없이 비슷하였다.

생활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주거와 생활상황의 이상이 실현되었느냐로, 두 집단 모두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했으나, 2010년 표본의 '+40 코하우징' 거주자들이 2001년 표본의 시니어고든 코하우징 거주자보다 매우 그렇다는 77.3%에서 58.3%로 줄고, 그렇다가 21.5%에서 39.4%로 높게 나타나 전체평균이 낮아졌다. 현 주거와 거주상황을 직전 주거에서와 비교했을 때는, 2010년 표본의 '+40 코하우징' 거주자들이 2001년 표본의 시니어고든 코하우징 거주자보다 다소 나쁘거나(13.0% →7.1%) 비슷하다(28.8%→15.7%)고 한 비율이 낮은 반면, 다소 좋거나(17.5% →21.3%) 매우 좋다(40.1% →52.8%)고 한 비율은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서 2010년 표본의 '+40 코하우징' 거주자는 왜 이전 주거에서 보다 현 주거와 생활상황이 더 나아졌다고 하면서 이곳에서 이상이 실현되었느냐에 대해서는 2001년 표본의 시니어고든 코하우징 거주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4개 항목은 이사 오기 전에 가졌던 기대가 충족되었는지, 동년배에게 노인용 코하우징을 권장하는지, 동년배와 자신의 현 주거와 생활상황을 비교하면 어떤지, 현재의 생활이 꿈과 같은 생활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사 오기 전에 가졌던 기대 충족과 동년배에게 노인용 코하우징을 권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약 80% 정도가 그렇다고 하였으며, 동년배와 자신의 현 주거와 생활상황을 비교하면 좋거나(25.2%) 매우 좋다(48.7%)가 약 73.9%이고, 61.1%가 현재의 생활이 꿈에 그리던 것이라고 하였다.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2010년 표본의 '+40 코하우징' 거주자들이 2001년 표본의 시니어고든 코하우징 거주자보다 긍정평가가 높은 항목은 동년배와 자신의 현 주거와 생활상황을 비교하면 어떤지와 동년배에게 노인용 코하우징을 권장하는지이며, 긍정이 낮은 항목은 이사 오기 전에 가졌던 기대 충족과 현재의 생활이 꿈에 그리던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를 앞서 유의

Table 5. Life Satisfaction in Cohousing Communities

(N=313)

Evaluation of life in cohousing communities	2001		2010		Total		F	
	n1	%	n2	%	n	%		
How do you 'thrive' in your housing and living condition?	not so good	2	1.1	3	2.4	5	1.6	12.75***
	good	39	21.5	50	39.4	89	28.9	
	very good	140	77.3	74	58.3	214	69.5	
	mean	2.76		2.56		2.68		
How is your present housing and living situation compared to the nearest earlier?	much worse	1	.6	4	3.1	5	1.6	5.28*
	a little worse	23	13.0	9	7.1	32	10.5	
	just similar	51	28.8	20	15.7	71	23.4	
	a little better	31	17.5	27	21.3	58	19.1	
	much better	71	40.1	67	52.8	138	45.4	
	mean	3.84		4.13		3.96		
The expectations you had before moving in have had been fulfilled?	no, far from	2	1.1	3	2.4	5	1.6	2.30ns
	no, not quite	28	15.8	27	21.3	55	18.1	
	yes, quite all right	147	83.1	97	76.4	244	80.3	
	mean	2.82		2.74		2.79		
If you compare yourself with other people of similar age, how do you think you are dwelling and living?	much worse	-	-	1	.8	1	.3	1.72ns
	a little worse	4	2.2	6	4.7	10	3.3	
	just similar	50	27.9	19	15.0	69	22.5	
	a little better	44	24.6	33	26.0	77	25.2	
	much better	81	45.3	68	53.5	149	48.7	
	mean	4.13		4.27		4.19		
Would you recommend other persons in your age to move to senior cohousing?	no, never	1	.6	1	.8	2	.6	.50ns
	yes w/some exception	37	20.4	21	10.5	58	18.8	
	yes, absolutely	143	79.0	105	82.7	248	80.5	
	mean	2.78		2.82		2.80		
Is this your 'dream living'?	no, far from	3	1.7	3	2.4	6	2.0	1.26ns
	no, not quite	60	34.5	51	40.2	111	36.9	
	yea, just right	111	63.8	73	57.5	184	61.1	
	mean	2.62		2.55		2.59		

* $p < .05$ ** $p < .01$ *** $p < .001$

미한 차이를 보인 2개 항목과 연관해서 살펴보면, 현재의 주거와 생활상황은 객관적인 기준인 이전주거나 동년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동년배에게 노인용 코하우징을 권유한다는 비율은 높아졌지만, 현 주거와 생활상황에서의 이상 실현이나 이사 전의 기대 실현 또는 꿈과 같은 생활 인지와 같은 주관적인 기준에서 보는 평가 항목에서는 긍정도가 낮아졌다.

이상과 같이 2010년 표본의 '+40 코하우징' 거주자들이 공동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거와 생활상황에 대한 객관적 기준에 대한 평가도 더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정성평가가 낮은 이유는 무엇이지, 거주자 특성과 이주동기 변화와 관련하여 기대와 이상이 높아

져 종합적인 평가가 낮아진 건 아닌지 등에 대한 세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생활만족도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주거이동계획과 원하는 연령구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Table 6), 두 문항 모두 두 표본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2010년 표본의 '+40 코하우징' 거주자들은 2001년 표본의 시니어고든 코하우징 거주자보다 계속 거주하려는 의사가 낮고(83.2%→65.4%), 주거이동의사를 갖은 비율(16.8%→34.6%)이 2배 이상 높았다. '+40 코하우징' 거주자의 1/3가량(34.6%)은 주거이동의사를 약간(30.7%) 내지 매우(3.9%) 갖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주거를 선택한다면, 2001년 표본의 시니어고든 코하우징 거주자의 90.6%는 현재와 같은 시

Table 6. Plan to Move Out and Ideal Composition of Age Group

Plan to move out and ideal composition of age group	2001		2010		Total		F/ χ^2	
	n1	%	n2	%	n	%		
Have you thought of moving out from here?	never	154	83.2	83	65.4	237	76.0	F= 11.80***
	a little	27	14.6	39	30.7	66	21.2	
	quite a lot	4	2.2	5	3.9	9	2.8	
	mean	2.81		2.61		2.73		
If you were going to choose today, would you choose a housing unit in w/mixed inhabitants terms of composition of inhabitants' w/ only senior or +40 age group?	something else	9	5.0	6	4.8	15	4.9	χ^2 = 15.57***
		8	4.4	23	18.3	31	10.1	
		163	90.6	97	77.0	250	85.0	
	sub total	180	58.8	126	41.2	306	100	

*** $p < .001$

니어 코하우징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2010년 표본의 '+40 코하우징' 거주자들은 77.0%만이 '+40 코하우징'을 선택하겠다고 하였으며 5~6명중에 한명(18.3%)은 연령통합형 코하우징을 선택하겠다고 하였다. '+40 코하우징' 거주자의 일부는 2001년 표본의 시니어고든 코하우징 거주자보다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사는 연령통합형 코하우징 거주에 대한 바람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이유는 다양하겠으나 '+40 코하우징'의 주민들이 시니어고든의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평균연령이 더 젊으므로 주거이동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한 반면, 시니어고든 주민들은 고연령층에서 나타나는 주거이동을 희망하지 않는 일반적 성향이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40 코하우징'에 거주하는 일부 젊은 층의 주민들은 실제로 연령통합형 코하우징의 주민들과 연령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서 연령통합형 코하우징으로의 이주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V. 결론

이 연구는 2001년과 2010년에 스웨덴 전역에서 동일한 질문지로 조사한 두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여 스웨덴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의 시계열적 차이를 분석한 선행연구(J. Choi, 2013b)의 후속연구로,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두 시점의 공동활동 참여도와 생활만족도 차이를 분석해 변화를 찾아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1년 표본은 JM주택회사에서 입주예정자와 함께 개발하여 분양한 시니어 코하우징 8개단지 186세대이며, 2010년 표본은 노인용 코하우징의 입주연령이 5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완화된 '+40 코하우징' 4단지 127세대로, 연구대상은 총 12개단지 313가구이다.

2010년에 조사한 '+40 코하우징' 주민의 일반특성은 2001년에 조사한 시니어고든 코하우징 주민들보다 비교적 건강한, 고학력, 전문직, 독신, 여성이 많다는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일반적 특성으로 알려진 바와 같은 특성이 주관적 건강상태를 제외하고 더 뚜렷하다. 공동식사를 비롯하여 모든 항목의 공동활동에 더 적극 참여하고 있어 자치관리모델 코하우징의 기본 취지에 더 맞게 생활하고 있으나 공동활동의 빈도와 내용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차이 없이 대체로 비슷하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생활만족도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선행연구(J. Choi, 2003b)에 나타난 두 표본간의 이웃과의 친밀한 접촉이나 상호협조, 공동활동 참여와 이주동기에 대한 차이가 현 코하우징에서의 공동활동 참여도에 반영되어 자신이 참여하는 공동활동의 빈도나 내용이 적당하다고 느껴짐으로써 생활만족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게 된 것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더불어 '+40 코하우징' 거주자의 일부에게는 10년 전 시니어고든 코하우징 거주자에서는 미미했던 주거이동의사나 연령통합형 코하우징 선택을 고려해보는 의지가 있음을 파악한 것은 이 종단연구에 의한 성과의 일부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2001년에 조사한 시니어고든 코하우징 주민들보다 2010년 표본의 '+40 코하우징' 거주자들은 공동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주거와 생활 상황에 대한 객관적 기준인 이전주거나 동년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무의미하게 낮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더 함에도 불구하고, 현 주거와 생활상황에서의 이상 실현이나 이사 전의 기대 실현 또는 꿈과 같은 생활인지와 같은 주관적인 기준의 정성평가는 유무의미하게 낮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용 코하우징에서의 일반적인 거주특성으로 알려진 전형적인 생활모습과 다소 다른 다양성이나 혹은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인지? 왜 현재 거주하는 코하우징에 머무르려는 의사가 낮아졌으며 왜 일부는 연령통합형 코하우징을 대안으로 고려하는지? 이런 변화는 어떤 거주자들에 의해 왜 나타나는 것인지? 등의 의문을 밝힐 흥미로운 후속연구가 기대된다.

결국 스웨덴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은 40여 년간 스웨덴 코하우징의 자치관리모델 이념을 더 뚜렷이 자리매김 하면서, 10년 전 보다 공동체 의식과 기대가 높고, 공동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며 여전히 높은 생활만족도를 유지하고 역동적으로 변화를 탐색하면서 공동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왜 스웨덴 노인용 코하우징이 지속적으로 스웨덴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관심과 수요를 일으키고 활발한 사회 움직임의 중심에서 역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 안에 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 사회로 세계적인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미시적 거시적 차원에서 다양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밝힌 10년에 걸친 스웨덴 노인용 코하우징 거주자의 생활변화가 우리 사회에 증가하는 노후의 다양한 주거대안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응답하고, 사회의 노인지원 부담을 경감하면서 노인 스스로 활발한 자치적인 공동활동을 통해 활력과 자립성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주거대안으로서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고 확대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Cars, G. (2010). The welfare model provides a framework for Swedish housing policy. In D.U. Vestbro (Ed.), *In Living together: Cohousing ideas and realities around the world*. Division of urban and regional studies,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in collaboration with kollektivhus NU, 33-41.
- Choi, J. S. (2003a). The design feature of self-work model senior cohousing projects in Denmark.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4), 1-19.
- Choi, J. S. (2003b). Moving motivation of senior cohousing inhabitants in scandinavian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Architectural Institute (Planning)*, 19(12), 129-138.
- Choi, J. S. (2004). Evaluation of community planning and life of senior cohousing projects in northern european countries. *European Planning Studies*, 12(8), 1189-1216.
- Choi, J. S. (2005). Comparative study of inhabitants' life satisfaction in senior cohousing communities between Sweden and Denmark.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6(6), 149-160.
- Choi, J. S. (2013a). Why do people move to cohousing in Sweden?: Are there an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40 cohousing and the mixed-age cohousing? *Architectural Research*, 15(2), 77-86.
- Choi, J. S. (2013b). Difference of motivation of move to Swedish senior cohousing by longitudinal analysis: Focus on differences between the years of 2001 and 2010.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3), 81-92.
- Choi, J. S., & Cho, J. S. (2006).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in moving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senior cohousing residents in scandinavia.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1), 117-128.
- Choi, J. S. Cho, J. S., & Suh, K. S. (2014). Participation in common activities and satisfaction with common space: In a tentative framework of housing adjustment for swedish cohousing resident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4), 125-133.
- Choi, J. S., & Paulsson, J. (2006).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scandinavian senior cohousing projects*. Seoul, Korea: Jipmundang Publishing Co.
- Choi, J. S., & Paulsson, J. (2011). Evaluation of common activity and life in Swedish cohousing unit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12(2), 133-146.
- Choi, J. S., & Paulsson, J. (2015). *Senior cohousing in scandinavia*. Seoul Korea: Amunhaksa Publishing Co.
- Durrett, C. (2009). *The senior cohousing handbook: A community approach to independent living* (2nd ed.). Gabriola Island, BC, Canada: New Society Publishers.
- Egerö, B. (2010). Cohousing: issues and challenges. In D.U. Vestbro (Ed.), *In Living together: Cohousing ideas and realities around the world*. Division of urban and regional studies,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in collaboration with kollektivhus NU, 11-20.
- Glass, A. P. (2009). Aging in a community of mutual

- support: The emergence of an elder intentional cohousing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23(4), 283-303.
- Glass, A. P., & Vander Plaats, R. S. (2013). A conceptual model for aging better together intentionally. *Journal of Aging Studies*, 27, 428-442.
- Hong, H. O., Rhee, K. H., Choi, J. S., Kim, D. Y., Cho, J. S., & Kyon, O. J. (2004). *Where to live in later life*. Yangpyung, Kyunggido, Seoul Korea: Jisicmadang.
- Housing Study Group (2000), *Cohousing in the world*. Seoul Korea: Kyomunsa Publishing Co.
- Im, G. & Baek, S. (2011). A study on residential mobility of baby boomers in Korea. *Proceedings of 2011 Annual Conference of Korean Association for Housing Policy Studies*, 1-10.
- Kim, H., Lee, Y., & Yoon, H. (2010). The study on housing characteristics preferred by baby boomers after retirement: Focusing on apartment's residents of gangnam region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1(5), 83-92.
- Koyabe, I. (1994).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design of housing: A study of the Swedish collective hou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TH, Stockholm, Sweden.
- Paulsson, J. (2007, Sep. 07) *Housing environments for elderly people: Priorities in a scandinavian perspective*. Paper presented for the seminar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South Korea.
- Russell, L. (2000). *Housing options for older people*. London, England: Age Concern.
- Sangregorio, I-L. (2000). *Collaborative housing in Sweden*. Centraltryckeriet, Borås, Sweden: The Swedish council for building Research.
- Sangregorio, I-L. (2010). Collaborative housing from woman's perspective. In D.U. Vestbro (Ed.), *In Living together: Cohousing ideas and realities around the world*. Division of urban and regional studies,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in collaboration with kollektivhus NU, 114-123.
- Toker, Z. (2010). New housing for new households: Comparing cohousing and new urbanist developments with women in mind.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27(4), 325-339.
- Vestbro, D. U. (2010). History of cohousing: Internationally and in Sweden. In D.U. Vestbro (Ed.), *In Living together: Cohousing ideas and realities around the world*. Division of urban and regional studies,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in collaboration with kollektivhus NU, 42-55.
- Williams, J. (2006). Designing neighborhoods for social interaction: The case of cohousing. *Journal of Urban Design*, 10(2), 195-227.
- Williams, J. (2008). Predicting an American future for cohousing. *Futures*, 40, 268-286.
- www.kollektivhus.nu

Received: November 12. 2015

Revised: January 17. 2016

Accepted: February 2. 2016